

10/24/21

설교 제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0 장 1-26 절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3) 살인하지 살라

(출 20:14) 간음하지 말라

(출 20:15) 도둑질하지 말라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 20:18)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 20: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 20: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 20:21)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 20: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출 20: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 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0:25)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 20:26)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친히 돌 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도와 십계명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관성을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출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다섯 번(2, 5, 7, 10, 12)이나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의 관계가 정립 되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십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 구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 곧 복음으로 구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율법)보다 구속(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나라에 법이 있듯이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광야 교회)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노예였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 지키게 함으로써 죄를 범치 않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한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은 처음 하나님이 계명을 다 지킬 것을 요구했을 때 아주 자신있게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롬 3: 20)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셋째, 저들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주십계명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출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유일 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나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둘째 계명입니다.

(출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 곧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복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란 화살이 과녁을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공의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계명입니다.

(출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품성과 속성 및 인격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인간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자이시며 스스로 계시하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지 저주나 악담 농담 희롱 등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계명입니다.

(출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완수에 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완수에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그 정신은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신구약을 통해 동일합니다.

다음 다섯 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출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3) 살인하지 말라

(출20:14) 간음하지 말라

(출20:15) 도둑질하지 말라

(출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한 열째 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간음 도적질 등등 모든 죄를 불러 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실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인간의 마음 속 생각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 차원이 높은 계명입니다.

주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마 22: 37)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4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5-10 계명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5:21)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 5:22)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 5: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롬 7:6)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십계명(율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과 서기관들의 해석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문이라는 문자만을 보았으나 주님은 정신까지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 간음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부자 관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눅 18: 21)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입니다.

문제는 '마음 곧 정신'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중 괴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출 20: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출 20: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 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0:25)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 20:26)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단이란 자연석과 진흙으로 쌓은 단을 말합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싸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왜 돌을 다듬거나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이지 거기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저들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창 11:3)

저들은 토단을 쌓지 않고 역청을 발라 쌓았고 자연석이 아닌 인조석으로 쌓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흠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여 구속을 할 수 없으니 율법을 대신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율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음적인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은 일맥상통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고 했고 야고보는 사랑을 최고의 법(약 2:8)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와 십계명의 정신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